'혁신주도형 성장' 담당할 벤처정신 기대

글_ 오영호_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벤처정책을 처음 수립할 당시 '벤처'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언론과 일상생활에서조차 상용되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그 동안 수많은 벤처기업인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8년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소위 '1만불 함정'에 빠져, 언제 2만불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산・학・연・관 전문가 수백명과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통령 말씀처럼, 앞으로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도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혁신은 자연과학적인 생산기술의 진보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 새로운 기업조직 및 관리방식의 개발, 새로운 원료 공급원의 개발, 판로 개척 등 기업이윤의 증대에 부합되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난 5년간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벤처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뛰어난 기술력과 모험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인 것이다. 이는 또한 케인즈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투자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고 한 기업가의 '야성적 정신'(Animal Spirit)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는 이런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조짐은 최근 벤처업계가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직접지원을 통한 양적 확대에서 인프라구축을 통한 간접지원 위주로 바꿔 벤처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주도의 역동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하며, 벤처기업인들이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